

#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023-4000

형 · 동 · 주 · 물 · 기 · 와  
기초 동관기화보다 10배나 두꺼운  
평등주물기화는  
한번 시용으로 만년을 보장합니다.  
대일정주물기화 ☎ 739-8745/735-2344

영예회장 노대형/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 / (주)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월 18일 수요일 (주간)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자극한 마음으로 입하면  
구하는 바를 반드시 얻는다.  
(잡보장경)

## 법회 안내

- 거함정사포교원 (02)379-8940  
일요일의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자장재법회 매월 18일 오전11시  
교리법회 화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법회 화 오후8시30분  
건강법회 매월 마지막 일  
오전10시30분
- 불교문화포교원 (02)308-9520  
초8부법의 매월 1일 오전10시  
문화법의 매주 일 오후2시  
주부문화교실 매월 셋째주  
금 오전11시
- 어린이장학교실 일 오전10시  
흥은사 (02)822-1900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자장재법회 매월 18일(음)  
가족법의 매월 첫째·셋째  
토 오후7시
- 보리사 (02)562-9939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자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재법회 매월 24일(음)  
일부신도법회 화 오전10시30분  
어린이·종교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여의도포교원(02)784-9136  
일부신도회 일 오전10시30분  
경정공부 목·일 오전10시30분
- 부산관음사 (051)205-0069  
관음재법회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화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보통선전회 첫째·셋째오후2시  
금강경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합창선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 대전대심심인동(042)282-591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자장재법회 일 오후7시  
승광사포교당(0694)857-2328
-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자장법회 매월 18일(음)  
중·고동법회 토 오후3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  
할,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 뉴미디어시대 포교혁명 예고

## 불교TV 5일 시험방송... 8일 BBS 부산·광주도 정보화시대 '정신문화 길잡이' 기대... 개국준비 O.K

올해년의 새해와 함께 뉴미디어시대의 새시대가 열렸다. 불교텔레비전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푸" 사인과 동시에 시험방송을 시작, 안방 포교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 성도일인 지난 8일 오후 4시에는 부산과 광주 불교방송이 시험방송을 시작해 두 지역에 법음의 첫 전파를 보냈다.

(관객기자 14명) 불교텔레비전은 5일 2백여명 교제인사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시험방송은 불교텔레비전 이사장 태용스님, 총무위원장 황주스님, 총회위원장 설정스님, BBS 이사장 홍희스님, BBS 김태호사장, 신승원 서준각 이사장, 목동성소년회관 관장 광우스님, 금호전기 박영희회장, 국회의원 권익현화장등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지켜보던 내외빈의 루사인으로 방송개시 버튼을 함께 누르면서 시작됐다. 이날 불교텔레비전을 포함한 케이블TV의 시험방송은 서울의 종로·종로동 14개구와 부산·창원·대구·제주·목포·전주·춘천등 25개지역에서 가입자들이 시청했다. 이날 30일부터는 15개지역이 추가 13일까지는 10개지역이 추가 개통돼 3월 1일 개국이전까지는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케이블TV와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 지난 5일 태용, 황주스님등이 불교텔레비전 시험방송개시 버튼을 누르면서 본격적인 영신포교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날 시험방송에서 이사장 태용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들의 성원과 발원으로 불교텔레비전이 정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불자들의 신명을 바로 이끌고 불자들을 교화시키는데 불교텔레비전은 큰 힘을 담당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일 오후 4시에 거행된 부산불교방송(FM89.9 MHz) 시험방송에서는 김태호사장과 지역 스님들, 감가재부산사장등 각급 기관장 및 내외빈 3백여명이 동참 첫 전파 발사의 기쁨을 나눴다. 같은 시간 광주불교방송의 시험방송에서는 이상진 이사장, 강현필 불교방송전무등 임원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기관장들이 동참했다. 광주불교방송은 시험방송에 앞서 2층

법당에서 부처님 영안식 및 시험방송 기념법회도 가졌다. 부산불교방송은 18일 오후 2시 KBS총에서 개국축하 법요식 및 공연을 성대하게 갖는다. 신년 벽두에 불교텔레비전과 불교방송 부산·광주 지역의 시험방송이 성공적으로 출지됨으로 창단 매체를 통한 포교의 문이 한층 넓게 열리게 됐다. (일민태·정성운·도필선 기자)

## 목어

'탄생 불교TV'  
지난 5일 오전 10시 불교텔레비전 시험방송의 첫 화면에 이 자막이 플로즈 업 되는 순간 불자들은 감격과 환호의 박수를 쳤다. 이 땅의 2천만 불자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불교영원·불교방송건설을 입버릇처럼 아나 주문처럼 외워왔다. 그것은 발심이고 발원이었다. 수없이 반복되는 주문 앞에

서 '과연 이루어 질까' 의의를 가져보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방송국이 개국됐고, 아직 미흡하지만 곳곳에 불교병원이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 이제 새로 발심합시다

이제 올해년 벽두에 우리는 가히 포교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포교시대를 열게 됐다. 숙원사업들이 이처럼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있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일까. 사찰인연이

도래했기 때문인가, 사찰인연이 한 가만히 있어 있어도 돌아오는 것일까, 아니다. 2천만 불자들의 간절하고 지극한 원(願)이 결집되고 사회의 주변여건'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리고 정보고속도로, 인공위성대담들이 우리의 직장과 안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정보통신시대에 불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주 화엄법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불자들이 위상통신시대에 서야 할 지리는 어디일까. 이제 새롭게 발심할 때다. 화엄경은 발심의 이유를 이렇게 일러준다. "중생의 괴로움을 깊이 없애고 새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발심을 한다"

맑고 향기롭게

현대불교신문이 올해부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이 운동은 작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운동본부는 회주 법정스님의 지도 아래 지난 한해동안 연꽃스터커 보급, 소책자 '맑고 향기롭게' 보급, 어려운 이웃돕기,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선음악회(2회)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부산 경남 모임과 광주·충북, 춘천·강원 지역에도 모임을 구성, 운동의 확산을 넓혔으며 금년에는 전주, 광주, 대전, 제주, 대구, 구미, 천안, 원주, 뉴욕에도 지역모임이 발족될 예정입니다.

## 맑고 향기롭게 삼시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현대불교 공동 연중 캠페인

국내외로 뒤편 나가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에 현대불교가 동참, 보다 큰 성과와 효과적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현대불교는 지면을 통하여 이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들을 꾸준히 찾아내 게재할 것입니다. 한해동안 우리 뜻이 나눠주길, 목욕심기, 농촌 일손 돕기, 앞뜰시장 개설, 환경문화 강좌, 환경보호실천대회, 자선음악회 등 다채로운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실천을 앞세우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맑고 향기로운 실천 지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작은 것부터 함께 행하는 자라도 마련할 것입니다. 불자님이 계시는 가까운 곳에서 펼쳐지는 이 운동에 열린 마음과 환한 웃음으로 동참하시어 아름다운 인연의 씨앗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지방승가대에 비교종교학 신설

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도법스님  
조계종 교육원 산하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교육위원장에 도법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을 선출하고 기초사업 설립, 강원 현황조사, 비교종교학 과목채택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내용은 ▲재교육을 위한 교육장 설립 ▲기초선원설립 ▲승가자 학력조사 ▲강원현황조사 ▲지방승가대에 비교종교학 과목채택 ▲비구니 사본계열 강의 ▲교육과정 출간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방 승가대학의 강사님들의 신분보장과 교권확보를 위해 강주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민 교육원은 17일부터 23

일까지 태안사에서 종전스님(애인사 율원장)을 강사로 비구 사본계를 특강을 실시한다.

본사 사령	
한영우	명
김종근	명
김재경	명
이은자	명
도필선	명
박미영	명
임 기자	명
명 편집국 근무	(1월 4일지)

도약위한 조계종 중무계획 발표 15면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저희 現代 임직원은 새해에도 열심히 일하며  
밝고 힘차게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새해福 많이 받으십시오  
1995년 元트

IMAGINATION TO WORK HYUNDAI

現代